

일본, 반도체 통합 삼성전자 추격

2·3위 통합으로 세계3위 부상 ... 2010년 경영통합에 기본 합의

일본의 반도체기업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르네사스(Renesas)와 NEC일렉트로닉스가 2010년 4월 경영을 통합하기로 기본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통합 형태는 NEC일렉트로닉스가 르네사스를 흡수합병할 것으로 보이며, 4월27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가 통합하면 매출액이 1조2000억엔이 넘어 도시바(Toshiba)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인 동시에 미국의 인텔과 한국의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3위 메이커로 도약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양사는 생존을 위해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 업황 악화와 투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반도체기업의 도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일의 D램 메이커인 엘피다(Elpida)는 타이완 정부가 설립할 새 반도체기업과 자본 및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4>